

4강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(고후 3:7~4:6)

읽을 말씀: 3:18~4:6

오늘의 포인트

- 바울 사도의 강조점 이해하기
 -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맡은 복음 사역의 영광과 복음 그 자체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.
-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,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고 회심하는가를 깨닫기

내가 받은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럽다(3:7~4:6)

- 나 자신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을 보라.
- 내가 맡은 직분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다.
-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이 받은 직분을 분명하게 구분한다.

새언약의 직분의 영광(3:7~18) – 바울의 직분과 모세의 직분의 비교

(3:6)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

- ‘새언약의 직분’(새언약의 일꾼, 6절)--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과 모세가 받은 직분을 비교한다.

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(3:7~8)

(3:7~8)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

- 율법 조문의 직분--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에 돌에 새겨진 글자를 받았다.

3:7~18은 출애굽기 32~34장에 대한 바울 사도의 주석

- **(32장)** 그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던 백성들에게 내려온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그 죄악을 다뤘다.
- **(33장)**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자 회막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.
 - “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십시오.”
 - “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.”
-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으로 보았다.
- **(34장)** 전과 같이 깎아 만든 돌판에 하나님은 다시 글자를 새겨 십계명을 주셨다.
-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타났다.
-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였다.
-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만 수건을 벗었고 백성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렸다.

- 이 모세는 그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지키라고 명하였으며, 백성들은 두 번이나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패했다(출 19, 24장).
- 이것이 죽게 하는 ‘**율법 조문의 직분**’이다.
 - 이것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.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그것을 증명한다.
- 바울 사도가 받은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니라 ‘**영의 직분**’이었다.
 -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.
 - 돌판에 새겨진 글자는 지키게 할 아무런 힘이 없어서 백성들이 번번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, 바울 사도가 받은 ‘영의 직분’은 백성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,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게 만드는 직분이기에 더 영광스럽다.

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(3:9)

(3:9)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

- 모세가 받은 ‘**정죄의 직분**’
 - 율법은 정죄한다.
 - 율법은 죄를 지적하여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한다.
- 바울 사도가 받은 ‘**의의 직분**’
 -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직분
 -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에 근거해서 의를 얻게 해주는 직분이다.
 - 여기에는 ‘정죄함이 없다’.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모든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.
 -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다.
 -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.
 -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사람들의 양심에 걸림돌을 놓았다. ‘오직 믿음’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다.
 - 정죄의 직분도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영광이 있지만,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.

없어질 것이 아니라 길이 있을 것(3:11)

(3:11)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

- 모세의 직분 = ‘없어질 것(직분)’
- 바울의 직분 = ‘길이 있을 것(직분)’
-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는 결국 사라질 것이었지만,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(고후4:6)은 사라지지 않는 광채다.

(3:10)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

- 이것은 한밤을 비추던 전등 빛이 해가 밝아오면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(10).
- 그래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.

수건이 벗겨진 직분(3:7,13~18) – 모세가 쓴 수건의 의미

(3:7)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

모세 얼굴의 광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

-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모세의 얼굴을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었던 이유(출 34:30)
-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.
- 그것을 본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다.
- 이것이 율법 조문의 직분, 정죄의 직분의 의미다.
- 모세의 행동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다. 그들은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.
- 또 모세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의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축복도 얻을 수 없게 만든 일이 되었다. 이것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 가지는 딜레마다.

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수건의 의미

-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더 이상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.
 -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그 수건은 벗겨져야만 한다(3:14).
- (3:14)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
- (3:17)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
-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
 -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유
 -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
- ‘자유’(3:17) = 마음의 완고함이 벗겨지는 자유(3:14)
 - 지성의 완고함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의 완고함 →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신학으로 흠 없이 바르게 이해를 해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.

영광을 보라(3:18~4:6)

-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한계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, 복음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고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.
-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(3:18)
 - 거듭남과 회심
 -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

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(3:18)

(3:18)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

주의 영광을 보는 것

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변화는 수건을 벗고 ‘주의 영광을 볼 때’ 일어난다.

이 변화는 습관을 고치는 의지의 결단으로 되는 변화가 아니라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다.

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,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.

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수건을 벗기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.

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

거짓 사도들이 고린도교회에서 들어와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는 일이었다.

수건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벗겨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했다.

(4:2)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**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**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

거듭남과 회심이 일어난다(4:3~6) — 인생 최대의 변화/전환점

하나님께서 ‘빛이 비치라’고 말씀하실 때(4:6)

(4:6)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

(창 1:3)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

- 거듭남/회심 = “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”을 최초로 보는 것 (벧전 1:23)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
- (약 1:18)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

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(4:3)

(4:3)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

- 복음 자체의 결함이나 하자가 아니다.
-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믿고 싶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.

복음의 진리 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— 영광을 본다(4:2,5).

(4:2)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

- 물 타지 않은 복음의 진리가 전해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.
- 이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소망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게 하며(3:12) 낙심하지 않게 한다(4:1).

(3:12)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

(4:1)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

오늘의 적용

-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, 하나님의 말씀이다.
-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다.

